

# 또 이럴 수가- 난청아 두 명 키우기

## 셰릴 레이시 (CHERYL LACEY)

‘그 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라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저는 결혼하여 청각 장애아를 둘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명이라도 낳을 것이라고는 적어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리 가족 중 아무도 청력수준이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아들이 (또 나중에 둘째 아들도) 청력수준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충격이 크거나 그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도 기정 사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고된 여정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여정이 어떤 모습일 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큰 아들 에머슨은 아주 어려서부터 청력 수준이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개입기관에 아이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 근거리에서 있는 기관이라서 선택을 하긴 했지만 필요하면 나중에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에머슨은 초기에는 보청기의 도움을 받았는데 두 살이 되자 양쪽 귀의 청력이 심각하게 나빠졌어요.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결국 한쪽 귀에 인공와우를 하고 일년 뒤에 다른 쪽 귀에도 인공와우를 해줬어요. 처음 몇 달간은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계속 착용하는

게 전투와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러한 장치를 벗기는 게 전투였죠. 에머슨은 나름 고집이 세서 오늘날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많은 끈기와 지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8년이 지나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청력이 좋은 동급생들과 함께 읽고 말하고 모든 영역에서 자기 학년 수준의 학습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에머슨의 청력이 최고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을 당시에 저는 임신 5개월이었어요. 우리는 둘째 아이가 네 명 중 한 명 꼴의 확률로 청력이 다를 거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둘째 그랜트가 태어났을 때 청력이 ‘정상’이라는 걸 알고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청능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아이를 세심하게 지켜 보았습니다. 아이의 난청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이라는 점을 알고 우리도 집에서 잘 지켜 보았어요. 솔직히 말해, 아이의 청력이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믿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첫돌을 지나고 언젠가부터 아이의 반응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기억됩니다. ‘또 이럴 수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남편에게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지는 않았죠. 두어 주쯤 혼자 조용히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에머슨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고 없을 때 남편과 둘째 아이를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 제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그랜트 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남편도 내 말에 동의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해왔지만 우리는 누구도 상대에게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크게 웃었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 안심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서로 함께 지내며 앞 날의 여정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아는 것도 위안이 됐어요. 한 달이 채 안 되어 그랜트는 BC주 어린이병원에 가서 진정제를 먹인 상태에서 청력검사를 받았습니다. 청력수준을 확인한 후 저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의 귀꽃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한 시간 반 뒤에 집에 도착해 보니 청능사가 벌써 메시지를 남겼더군요. 다음에 할 일은 인터넷으로 그랜트의 조그마한 보청기의 색 (코발트 청색)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보청기는 너무나 작았어요! 두 시까지 보청기 주문을 마치고 귀꽃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똑 같은 난청인데도 둘째 아이의 경우는 첫째 아이 때와 같이 심한 슬픔을 겪지는 않았습니니다. 솔직히 좀 속은 기분이 들었어요. 난청이 아닌 아이를 키워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관찮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둘째 아이도 관찮고 우리도 관찮을 거라고요. 아이는 자라면서 성능이 좀 더 강력한 보청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형과 같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이 아이도 인공와우를 해 줘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각각 일곱 살과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은 보통의 사내 아이들이나 형제들과 똑같아요. 몸싸움하다 서로 보청기를 쳐서 떨어뜨리고, 잠시 멈추어 다시 끼우거나 자석을 제자리에 뒹요. 다른 사람이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시끄럽게 하면 서로 답답해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전 웃음이 나요! 두 아이는 서로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가장 잘 할 수 있을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침이 되면 둘째 아이가

거실에 나와 형에게 인공와우를 주고 본인은 보청기를 꺼요. 첫째 아이는 이제 둘째가 자동차 중간 자리에 앉아야 가장 잘 들린다 걸 이해합니다.

이 여정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은 다행히도 친구들과 가족, 청능사, 의사, 그리고 물론 조기개입기관에 있는 모든 분들의 지원을 받았어요. 수년간의 눈물과 웃음을 거쳐 우리가 이 여정의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분들이 우리 가족의 성장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